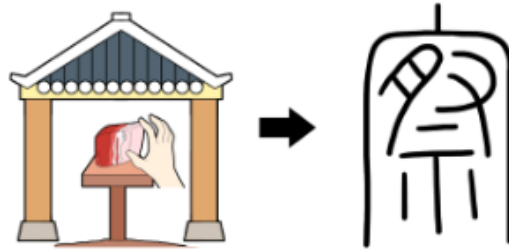


4(2)
-
201

회의문자①



察

살필 찰

察자는 '살피다'나 '자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察자는 宀(집 면)자와 祭(제사 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祭자는 제단 위에 고기를 얹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사'라는 뜻을 가진 祭자에 宀자를 결합한 察자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일을 치를 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察자는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빠진 것이 없는지 두루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두루 살피다'나 '자세히 알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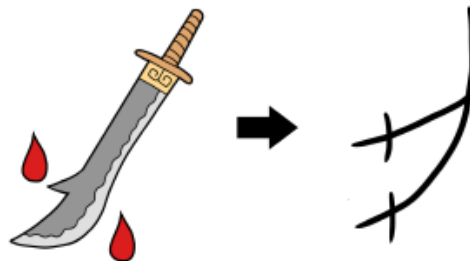
소전

察

해서

4(2)
-
202

형성문자①



創

비롯할 창:

創자는 '비롯하다'나 '다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創자는 倉(곳집 창)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倉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創자는 단순히 칼에 피가 묻어있는 모습만이 創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다치다'라는 뜻을 가진 刃(비롯할 창)자이다. 칼에 피가 묻어있으니 이것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칼부림이 벌어진 것일까? 아마도 어떠한 다툼이 원인이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創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칼부림이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비롯하다'나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소전에서는 倉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創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創

금문

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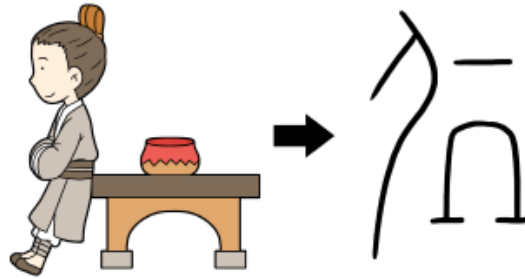
소전

創

해서

회의문자①

4(2)
-
203



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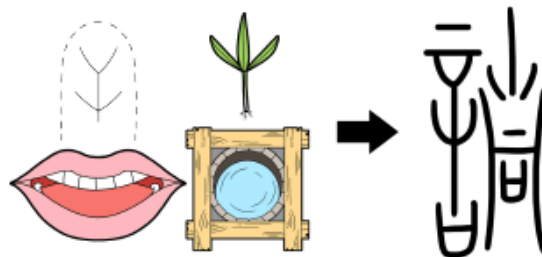
곳 처:

處자는 '곳'이나 '때',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處자는 虎(범 호)자와 処(곳 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處자는 본래 処자가 먼저 쓰였었다. 処자의 갑골문을 보면 止(발 지)자와 冫(뒹을 먹)자만이 冫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발이 탁자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止자 대신 人(사람 인)자가 쓰이면서 사람이 탁자에 기대어 止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處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탁자에 기대어 잠시 멈추어 있음을 뜻한다. 이후 소전에서는 處자와 虎자와 결합하면서 범이 앉아있는 모습의 處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4(2)
-
204



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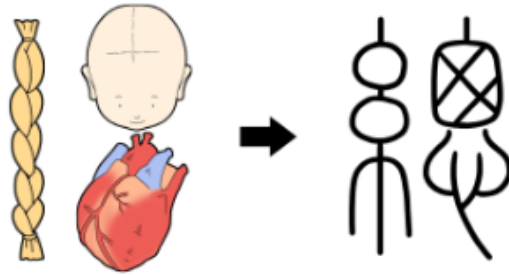
청할 청

請자는 '청하다'나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請자는 言(말씀 언)자와 青(푸를 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청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바람과 요구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請자를 살펴보자. 青자는 맑은 우물과 푸른 새싹을 그린 것으로 '푸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맑고 푸름을 뜻하는 青자에 言자가 결합한 請자는 '깨끗하게 말하다' 즉 '말을 정중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請자는 본래는 '아뢰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정중히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워낙 간곡한 표현이다 보니 중국어에서는 존칭어로 쓰인다.

금문	소전	해서

4(2)
-
205

형성문자 ㉠



總

대[皆]
총:

總자는 '모두'나 '총괄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總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惠(바람
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惠자는 사람의 머리와 심장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總자는 본래 실을 모아 한 다발의 묶음이 되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묶
다'나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모든 것을 합했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종합하
다'나 '총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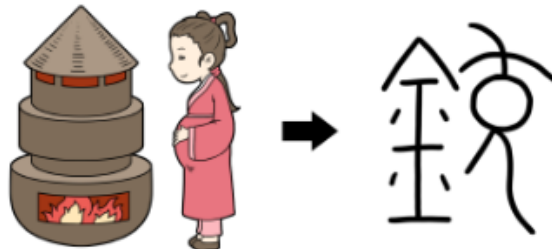
소전

總

해서

4(2)
-
206

형성문자 ㉠



銃

총 총

銃자는 '총'이나 '우렛소리', '도끼 구멍'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銃자는 金(쇠 금)자와 充(찰
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充자는 '채우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총→총'으로의 발음역
할만을 하고 있다. 총이란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발사하는 무기를 말한다. 하지만 소전이 등
장했던 시기인 진나라 때도 銃자가 있었으니 총의 역사와는 맞지 않는다. 사실 고대에는 銃자
가 도끼날을 감싸던 주머니를 뜻했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銃자가 '도끼자루'라는 뜻으로 쓰였
었지만, 원과 명을 거치면서는 총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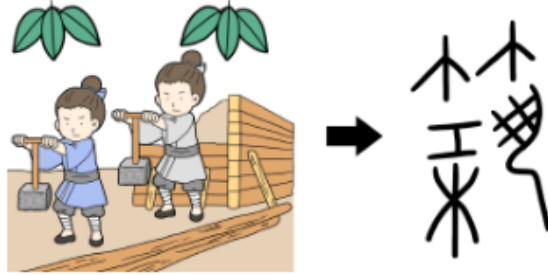
소전

銃

해서

4(2)
-
207

회의문자①



築

쌓을 축

築자는 '쌓다'나 '다지다', '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築자는 筑(쌓을 축)자와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筑자는 나무를 세워 흙을 다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쌓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미 筑자에도 '쌓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木자를 더한 築자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고대에는 흙을 다져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성벽이나 담벼락을 만들었다. 그러니 築자에 쓰인 竹자와 木자는 흙벽을 쌓기 위해 세워놓은 목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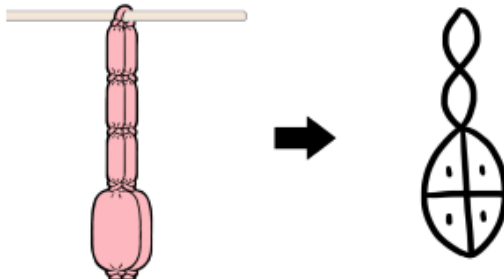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4(2)
-
208

상형문자①



蓄

모을 축

蓄자는 '모으다'나 '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蓄자는 𩇛(풀 초)자와 𩇛(짐승 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蓄자는 짐승의 밥통과 창자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을 𩇛 표현한 글자다. 고대부터 중국에서는 소금에 절인 고기나 밥을 동물의 창자에 넣어 보관했다.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의 소시지나 순대와 같다. 그래서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蓄자가 '모으다'나 '쌓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짐승'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𩇛자를 더한 蓄자가 '쌓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 蓄자에 쓰인 𩇛자는 '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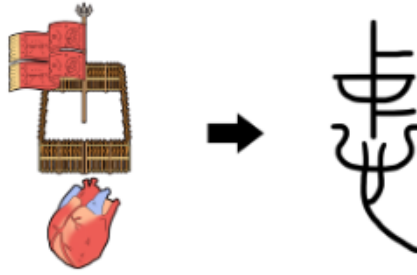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4(2)
-
209

회의문자①



忠

충성 충

忠자는 '충성스럽다'나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忠자는 中(가운데 중)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中자는 원안에 깃발이 꽂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中자와 心자가 결합한 忠자는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에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忠자는 마음에 중심이 잡혀있다는 의미에서 '공평하다'나 '충성스럽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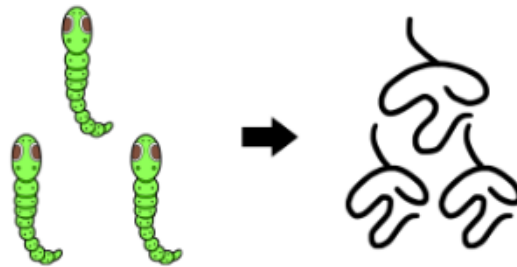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210

회의문자①



蟲

벌레 충

蟲자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蟲자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虫(벌레 충)자를 여러 자 겹쳐 만든 것이다. 蟲자는 이렇게 여러 마리의 애벌레를 그린 것이지만 '애벌레'나 '벌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사실 이전에는 虫자가 '벌레'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虫자는 '벌레'와 관련된 부수자 역할을 하고 蟲자는 단순히 '벌레'를 뜻하고 있다.



소전



해서